

2012 새해에는

9 오주승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기업컨설팅을 특수사업으로”

“전경련과 공동으로 맞춤형 기업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주승 전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은 “기업컨설팅 사업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경영지도 등으로써 해당 기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경영·마케팅 혁신을 이뤄 일부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라며 “특수사업으로 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전남도의 위탁을 받아 약 15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했다”며 “올해 자금을 더 확보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가공 중소기업과 전남만이 가진 천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관련 기업 창업과 육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남이 가진 경쟁력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FTA 대응전략



농수산 유통기업 육성 FTA 연구 인력 양성

에 대해서는 “전남과 같이 농수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부 대책은 당연하다”며 “이와 함께 센터 부설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설립한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FTA 실태를 조사, 각 산업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와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개별기업의 수혜업종과 상대국의 진출 전략을 세워 시장 개방이라는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기지원센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청년 창업·창직 및 인턴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 등을 통해 전남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

오 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일본 지진 여파와 중국의 식량, 그 중에서도 친환경 먹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남 입장에서 호기다”며 “친환경 농수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농수산물 관련 유통·가공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저장장 속에서 지속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광주일보 논설위원·정치부장·사회부장·문화부장, 전남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보험 청구, 우편·팩스로도 가능

금감원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 발표

실손 의료비 지급 빨라지고 보험광고 사전 검증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 따르면 보험업계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비(非) 대면접수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접수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청구 접수를 원칙으로 한 탓에 소액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객의 불만이 컸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어려운 계약자는 설

계사가 ‘청구도우미’로 찾아가 복잡한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대신 보험사에 내 준다.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사후정산 방식인 탓에 값비싼 치료는 엄두를 못 내던 저소득층은 병원의 진료비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먼저 타 치료비를 쓸 수 있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보험금 청구·지급이 간편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

고 기대했다.

실제와 달라 골탕먹기 일수인 보험 광고는 각 보험사가 소비자평가단을 꾸려 광고를 내기 전에 평가단의 검증을 받는다.

평가단은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대목을 지적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의 생·손보험회 광고심의회도 평가단의 검증 결과가 반영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흡소광 채널의 보험광고 역시 소액호스트(상품 소개자)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협회가 미리 심의한다.

김 부원장보는 “과장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고령자 대상 상품과 복잡한 상품부터 먼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기업과 계약한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제3자(법인 등)로 지정

하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익자(기업)가 받은 보험금이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사장 등이 중간에 보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바람에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은 실적이 우수한 장기근속 설계사가 넘겨받아 관리하는 지침이 도입된다.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보험료 월령 사건까지 벌어지는 보험사의 ‘보험왕 설계사’ 제도는 신계약 건수와 불안전 판매 비율을 함께 고려해 평가한다.

은행원의 ‘자폭증장’처럼 설계사가 자신과 가족 등의 계약으로 실적을 내는 ‘자기계약’은 영업조직 성과평가에 넣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 1500만명 돌파 ‘눈앞’

연금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 15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86만명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1499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15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늘어난 보험료 납부 가입자

수 86만명은 지난 1999년 전국민연금 시행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내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특히 사업장 가입 확대 등으로 지

난 10년간 계속 즐기만 하던 지역가입자 수가 지난해에만 20만명이 늘어난 것은 노후준비의 중요성 확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인식해 가입을 꺼리거나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0만명이나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연합뉴스



“웃놀이 하고 투호 던지고...”

에버랜드 21~24일 ‘설 민속 한마당’

에버랜드는 설연휴 기간인 오는 21~24일 ‘민속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설 당일인 23일에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서커스단 ‘동춘 서커스’를 초청, ‘전통 율동’과 서커스가 어우러진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공연은

실내 공연장에서 오후 1시30분과 3시 20분 2차례 30분씩 진행된다.

행사 기간중 ‘카니발 광장’에서는 웃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8개 종의 민속놀이를 할 수 있고 한복을 차려입은 에버랜드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가훈을 써 보고 응

과 사군자를 그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진년(壬辰年) 용(龍)의 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열두 띠 동물 특별전시’도 볼 만하다. 특별전은 호랑이, 원숭이, 닭 등 띠 관련 동물 16종, 50여마리를 한 곳에 전시, 어린이들이 띠별 동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용띠해 기념으로 용띠 고객과 외국인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준다. 설연휴 기간 오전 10시~ 저녁8시까지(24일 7시까지), 캐리비안베이 오전 9시30분~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최재호기자 lion@

“1만원권 발행 90% 줄었다”

한은부산본부...5만원권 등장에 화폐손상 급감

5만원권 등장 이후 부산지역의 1만원권 발행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5만원권과 1만원권이 함께 사용되면서 1만원권의 화폐손상이 크게 줄어 화폐 재사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17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에 새로 제작해 공급할 1만원권 새 돈은 1100억원으로 지난해 1824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5만원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8년 부산지역에 공급된 1만원권 새 돈 규모는 1조1734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4년간에 새로 찍는 1만원권의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5만원권 발행으로 1만원권 수요가 5만원권으로 대체되면서 은행

으로 환수되는 1만원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환수된 1만원권을 사용회폐와 손상회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손상 정도가 미미해 다시 사용되는 화폐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지역에서 환수된 1만원권 가운데 손상회폐로 폐기된 비율은 3.5%에 그쳐 5만원권 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손상회폐 폐기를 28.7%에 비해 크게 줄였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새로 만들어 공급된 5만원권 새 돈은 5665억원으로 2010년의 4443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정부가 2011년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2011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38조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3조6000억원이 늘어 10월 중 증가폭인 5조7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5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인 3조2000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83조8000억원이었다. 증가폭은 전월 2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계대출 잔액은 412조9000억원, 비수도권은 22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FEZ (Gwangyang Free Economic Zone) featuring a hand holding a smartphone with the GFEZ logo, a QR code, and text promot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services in the region.